

4/4/21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20 절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절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부활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 연유로 그것을 들은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를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계시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열 두 제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이들은 이것들을 부정합니다.

셋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롬 3: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고후 5:14)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럼에도 이들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넷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 일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 또는 전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의 승천과 재림도 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현대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교인들을 미혹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해결책과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 장은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에게 부활에 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 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 절부터 19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간의 상관 관계, 20 절부터 28 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29 절부터 35 절까지는 부활의 근거, 35 절부터 49 절까지는 부활할 몸의 특성, 50 절에서 58 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적었습니다.

본문은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간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으며 특히 철학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철학 사상은 모두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며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를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 년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큰 물고기에 삼키웠다가 삼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 16: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시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오백여 형제들, 야고보, 사도 바울 등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그분을 직접 만나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전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부활을 전했습니다.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사이의 상관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자들은 다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값인 사망의 저주에 붙잡혀 죽을 수 밖에 없으므로 망하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짜피 죽을 것인데.....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 뿐이라면 한 번 뿐인 이 세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다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까닭에 이 세상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 갈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쁜 소식인 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믿는 자들의 영생 부활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복음을 믿어 부활의 권능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